

## 서재응 “난 SK 킬러”

### KIA 준 PO 3차전 선발 ... 고든과 맞대결

SK 킬러 서재응이 '비룡 사냥' 전면에 선다. 적지에서 1승을 챙겨온 KIA 타이거즈가 11일 안방에서 SK 와이번스와의 준플레이오프 3차전을 맞는다. 앞선 두 차례의 대결은 '마운트 싸움'이었다. KIA는 윤석민과 김광현이 맞붙은 1차전 선발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며 기선제압에 성공했지만, 2차전 불펜 대결에서 밀리며 승을 내쳤다. 원점으로 돌아간 2011 준플레이오프의 3번째 경기는 노련한 서재응이 책임진다. SK는 고든을 대항마로 내세웠다. 서재응은 투수진이 꼽는 SK전 최고의 필승카드다. 상대전적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왔고 큰 경기에서 빛을 발하는 노련함이 큰 무기다. 서재응은 올 시즌 SK와의 경기에서 4차례 등판해 1.93의 방어율을 2승을 수확하며 강한 면모를 과시했다. 마운드가 흔들렸던 후반기에선 최고의 컨디션으로 팀의 에이스 역할까지 수행했다. 9월25일 두산전 선발을 끝으로 선발 임무를 마무리했던 서재응은 지난 4일 SK와의 경기에서 중간으로 등판, 1이닝을 소화하며 컨디션을 조절했다. 서재응은 KIA의 필승카드이자 최후의 카드이기도 하다. KIA는 올 시즌 최고의 선발진을 보유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두 좌완 양현종, 트레비스가 무너지면서 후반기가 어렵게 마운드를 꾸려왔다. 부진과 부상에서 벗어난 두 선수를 선듯 선발 카드로 내세우지 못한 이유다. 결국 윤석민-로페즈를 1·2차전에 투입했던 KIA에게 서재응은 남아있는 최후의 선발 카드이기도 하다. 믿을 수 있는 서재응을 내세운 KIA의 속제는 내·외야

올 SK전 4차례 등판  
 2승 무패 방어율 1.93  
 :  
 '침묵' 안치홍·나지완  
 타격 감 회복이 숙제

의 핵심 안치홍·나지완의 '감'살리기다. 2009년 한국시리즈 7차전 승리를 이끌었던 두 사람은 이번 '가을잔치'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선수였다. 하지만 이들이 그리는 '2009년의 영광재현'이라는 목표가 오히려 발목을 잡았다. 2009년 고졸 루키와 대졸 2년차의 겹잡던 플레이로 팀 우승을 이끌었지만 2011년 팀의 핵심 내야수와 거포로 성장하면서 부담감도 그만큼 커졌다. KIA 전력구상의 변수로 작용했던 이범호와 최희섭은 준플레이오프 판도를 바꿀 변수로 급부상했다. 부상으로 인한 긴 공백에도 이범호는 2개의 2루타를 때려내며 방망이를 조율했다. 7번 타선까지 내려앉았던 최희섭도 9일 솔로포를 쓰이올리며 분위기 전환에 성공했다. 홈팬들의 열광적인 응원을 등에 업은 KIA는 안방에서 준플레이오프를 끝낼 수 있을지 베테랑 서재응의 어깨가 무겁다.

7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박주영 몇 골 넣을까?

오늘 UAE와 브라질월드컵 3차 예선



오후 8시 수원월드컵경기장

한국팀 대 UAE전 예상 베스트 11

11월(화) 오후 8시 수원월드컵경기장 KBS2TV중계



8회 연속 월드컵축구 본선 진출을 노리는 축구대표팀이 중동의 북빙 아랍에미리트(UAE)를 상대로 승점 사냥에 나선다. 조광래 감독이 이끄는 월드컵 대표팀은 11일 오후 8시 경기대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UAE와 2014 브라질 월드컵 아시아지역 3차 예선 B조 3차전을 치른다. 대표팀은 지난 7일 폴란드와의 친선 평가전에서 2-2 무승부로 개운치 않은 뒤끝을 남겼지만 선수를 두루 테스트했다는 사실로 위안을 삼았다. 하지만 UAE전은 실수가 용납되는 '모의고사'가 아닌 실전이다.

### 조광래 감독

“원톱 지동원 정점으로  
 박주영·서정진 ‘양날개’  
 승점 3점 꼭 챙기겠다”

현재 1승1무(승점 4)로 B조 선두에 올라 있는 한국은 2위 쿠웨이트에 다득점에서만 앞서 있다. 1위 자리를 굳혀 내달 중동 원정 2연전에 가벼운 발걸음으로 떠나려면 안방에서 치르려는 3차전에서 승점 3점은 반드시 챙겨야 한다. 객관적인 전력으로 보면 한국이 앞선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에 한국(29위)이 UAE(115위)보다 한참 위아래에 있고 역대 전적에서도 9승5무2패로 일방적 우세다. 가장 최근 맞대결인 2009년 6월 2010 남아공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6차전 원정에서도 박주영과 기성용의 활력이 특점에 힘입어 2-0 완승으로 7회 연속 본선 진출의 쾌거를 이룬 좋은 추억이 있다. 하지만 방심할 수는 없는 상대다. 지난해 광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올림픽 대표팀은 준결승에서 UAE에

막혀 결승 진출이 좌절돼 24년 만의 아시안게임 금메달 꿈을 접어야 했다. UAE는 1.2차전에서 연이어 패배 승점 확보가 절실한데다 최근 대표팀 공격수 제압 아와나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비극을 겪어 그 어느 때보다 필승 의지를 불태울 것으로 보인다. 녹록하지만은 않은 상황에 놓인 조광래 감독은 9일 파주NFC에서 진행한 전술훈련을 통해 선발전에 적지 않은 변화를 예고했다. 폴란드전에서 큰 재미를 보지 못한 '이동국 원톱' 카드 대신 지동원(선덜랜드)을 정점으로 박주영(아스널)-서정진(전북)이 좌우날개로,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로는 구자철(볼프스부르크)이 주전조를 뜻하는 '노란 조끼'를 입었다. 일단 선발진은 기존 대표팀 전형으로 복귀하는 셈이다. 이동국이 선발에서 빠지면 중원 요원들도 바뀌다. 폴란드전 때 남태희(발랑시엔)에게 자리를 내주고 수비형 미드필더로 내려갔던 구자철(볼프스부르크)은 다시 차진 스트라이커 겸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서고 수비형 미드필더는 기존의 기성용(셀틱)-이용래(수원) 조합으로 돌아간다. UAE전은 남은 예선 일정에서 조광래의 전술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관심을 끈다.

연남뉴스

### KIA '가을잔치 새내기'들의 특별한 경험

잠 설친 김선빈 “1차전 실수 호수비로 만회 안도”  
 느긋한 심동섭 “평소같이 씩씩하게 공 던져야죠”

프로야구 대축제로서 '가을잔치 새내기'들이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11 준플레이오프 엔트리에 이름을 올린 26명의 KIA 선수 중 가을 그라운드를 처음 밟는 이는 투수 조 막내 심동섭을 비롯해 모두 6명이다. 31살의 포수 이상우가 늦깎이 데뷔를 앞두고 있고 외야수 신종길은 빠른 발로 프로데뷔 9년 만에 가을 그라운드에 입성했다. 내야에서는 김선빈과 홍재호 그리고 마운드에서는 심동섭과 임준혁이 처녀출전이다. 김선빈은 2008년 데뷔 첫해부터 1군 무대에서 활약하며 KIA 내야의 핵심 선수로 성장했지만 정작 2009년 한국시리즈 무대에는 오르

지 못했다. 불안한 수비때문에 최종 엔트리에 낙점을 받지 못하면서 그라운드 밖에서 팀의 가을잔치를 지켜봐야 했다. 2009년 가을의 아픔을 겪었던 김선빈은 올 시즌 당당히 골든 글러브 후보로까지 이름을 올렸다. 팀의 주전 유격수로 자리를 굳힌 김선빈이지만 포스트시즌 첫 무대였던 만큼 8일 아찔한 실수도 했다.

이날 1회 무사 1루에서 보내기 번트에 실패했던 김선빈은 이어진 이범호의 적시타때 홈에 쇄도하다가 아웃됐다. 경직된 주루 플레이로 부상까지 당하며 관중석을 술렁이게 했다. 김선빈은 “팬히 잠을 설쳤다. 처음 서보는 큰 무대에서 긴장을 했던 것 같다”며 “실수는 했지만 결승타를 기록해서 다행이다”며 포스트시즌 데뷔 소감을 밝혔다.

협난한 신고식을 치른 김선빈은 9일 두 번째 경기에서는 호수비 퍼레이드를 펼치며 가을 그라운드 적응을 완료했다. 대졸 2년차 홍재호도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다. 홍재호는 “엔트리 합류 소식을 듣자마자 어머니께 전화드렸는데 프로 지명받을 때보다 더 좋아하셨다”며 “오랜만에 느껴본 긴장감이

었다. 첫날에는 제대로 잠도 못 잤다”고 밝혔다. 두둑한 배장투로 잠잠 카드로 엔트리에 합류한 투수 임준혁에게도 포스트시즌은 떨리는 무대다. 특히 지난달 21일 상무에서 제대를 하고 오자마자 포스트시즌에 오르면서 설레는 가을을 보내고 있다. 뒤늦게 가을잔치에 데뷔하게 된 '형'들의 긴장된 모습과 달리 신인 왕 후보 '막내' 심동섭은 가장 느긋한 모습으로 대조를 이뤘다. 심동섭은 “준플레이오프 첫날 별 생각 없이 잠 폭 자고 경기장에 나왔다. 시즌 후반 포구 제구가 안돼서 걱정했는데 제구도 잡히고 평소같이 씩씩하게 공을 던지겠다”고 말했다.

7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아이나비 | 만도네비 | 모비스네비

- ▶ 거치형 본인 네비 매립 전차종 17만원 ⇒ 12만원
- ▶ 만도정품네비 매립(후방카메라+사크안테나+마감재) 57만원 ⇒ 45만원
- ▶ 아이나비 2D 매립+후방카메라+사크안테나+마감재 61만원 ⇒ 49만원
- ▶ 아이나비 3D 매립+후방카메라+사크안테나+마감재 65만원 ⇒ 53만원
- ▶ 트립형 매립차량은 상담후결정

트립 이동형 장착 모습      매립장착모델      전차종가능

#### 블랙박스 | 후방카메라 | 사크안테나

##### 만도 블랙박스 BN100

- ▶ 2채널 8기가 35만원 ⇒ 30만원

##### 대한민국 대표 후방카메라 시그널 후방카메라

- ▶ 1채널=전방카메라    ▶ 2채널=전방+후방카메라

▶ 후방카메라 15만원 ⇒ 9만원부터      ▶ 사크안테나 10만원 ⇒ 6만원부터

#### 도난경보기 | 이지카 | 스타트버튼

추가부품(음선) 차량은 금액이 추가 될 수 있음

\*차량용 고급장수 2만원 상당 무료증정

- ▶ E25500 25만원
- ▶ E1 7만원
- ▶ E770B 40만원
- ▶ E7 37만원
- ▶ E7-S 43만원 / E7-B 51만원
- ▶ EZ620 10~14만원
- ▶ ET 17만원

#### 한국카렌드 자동차용품 백화점

TEL. 062-521-2258 H.P. 010-9633-3535

한국카렌드가 하는 일

- 루마넌팅, 3M코팅, 모비스코팅
- 맥과이어스광택, 코팅, 실내클리닝, 허부언더코팅
- 만도네비게이션, 아이나비, 모비스네비게이션
- 카오디오, 블랙박스, 후방카메라, DMB사크안테나
- 자동차경비일체, 밧데리, 오일교환, 라이닝 기타
-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수일타이어
- 천연가죽시트, 인조가죽시트, 수입차 가죽시트제조
- 바둑방음, 천장방음, HID램프, LED램프
- 이지카 도난경보기, 후방감지센서
- 여름상품, 겨울상품, 체인
- 모비스순정용품, 카약세리리 일체

전국 최저가 판매

- 국내최대 500평매장
- 주차장 700평 주차객정 끝

임동오거리    1인삼백    1허남  
 신안사거리    신안사거리

한국카렌드  
 임동 자동차거리 중간사거리(20번진)